

##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절 후 열넷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깔은 녹색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오늘 예배는 온가족예배로 드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파트럭(potluck)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4. 9월 30일부터 8주간 토요일 아침 9시에 교회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데스크에서 싸인업해 주세요. 강의 교재인 “다시 만나는 교회”도 신청해 주세요.
5. 다음 주부터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등부 모임이 재개됩니다.
6.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5일: 김배형 형제, 이수향 자매

###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전미영 집사 / 설교번역: 허민준 집사
- 9월 안내 및 봉사: 목자들 일동

### \*향후 목회 일정

- 부장회의: 9월 10일 예배후 @ 시나이룸
- 중부노회 및 목회자 세미나: 9월 11일-15일, 시카고 약속의 교회
- 수요기도회 재개: 9월 20일 수요일 저녁 8시

교회세운날 2017.6.11 2023-36 9월 3일 (성령강림절 후 열넷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9월 20일 저녁 8시에 다시 만나요.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https://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             |                                 |         |
|-------------|---------------------------------|---------|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 시 118:24-25                   | 인도자     |
| 신앙고백        | — 사도신경                          | 다같이     |
| 찬양과 경배      | —                               | 찬양팀과 함께 |
| 기도          | —                               | 이건영 집사  |
| 찬송          | — 565장 예수께로 가면                  | 다같이     |
| 성경봉독        | — 삼상 18장 1-4절                   | 인도자     |
| 설교          | — 사막과 같은 인생을 꽃피게 하는 우정 — 김경헌 목사 |         |
| 성찬식         | —                               | 다같이     |
| 봉헌찬송        | — 228장 오 나의 주님(3, 4절)           | 다같이     |
| 봉헌기도        | —                               | 인도자     |
| 교회소식        | —                               | 인도자     |
| 파송찬양        |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
| 축도          | —                               | 인도자     |

# 목회칼럼 / 탈핵(脫核) 세상을 꿈꿉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2차 세계 대전 당시 자신이 개발한 핵폭탄을 평가한 천재 과학자 오펜하이머의 말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통해 그의 전기 영화가 지난 달 개봉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평전의 제목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신화 속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창조 이전부터 대지에 거주했던 거인 종족인 티탄족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형제인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보다 더 우월한 인간을 만들고 그들에게 선물을 부여할 때가 되자 이미 갖고 있던 자원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의 수레를 이용해서 횃불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훔친 횃불 덕에 인간은 불을 이용한 문명의 발전을 이용했다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의 핵무기 개발을 프로메테우스가 불이 아닌 신의 제왕 제우스가 무기로 사용하던 번개를 훔쳐온 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시도라는 거죠. 핵무기의 피해자로 지금도 세계 사회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일본정부가 지난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앞바다에 핵발전소로부터 나온 핵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히려 일본정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혹자는 ALPS라는 정화장치 때문에 핵폐수 속에는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정부의 결정은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변의 이용불가능한 땅을 이용해 콘크리트 저장소를 만들어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문제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듯합니다. 미국정부는 자신의 나라의 뉴욕 주에서 사용이 중단된 핵발전소의 정화된 핵폐수에 대해 허든슨강 방류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뉴욕 앞바다에는 안되고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된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민 겁니다. 과학자들은 폐수 속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은 미량이고 무거워 근 거리 바다에 그냥 갈아 앉는다고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의 바다는 서로 연결되었고 지구 멀리서 일어난 일들은 지구 반대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할 책임은 청지기로서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핵폐수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보존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 위협들로부터 이 지구를 지켜내야 합니다. 인류의 안전과 공존을 위해 탈핵(脫核) 세상을 꿈꿔 봅시다. 싸고 열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핵을 이용한 발전소 건립을 합리화 해서는 안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수의 해양 방류는 인류의 첫 원전 폐수 해양 방류 케이스입니다. 함께 번영하고 공존해야 할 지구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